



약·조·기·행·을  
다·녀·와·서

### ‘생약떡’ 꿀맛

차안에서 보여준 ‘한국의 자원식물’이라는 SBS제작 특별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매우 유익했고 덕분에 가리왕산까지 가는 4시간 동안 지루한 감 없이 여행할 수 있어 좋았다.

또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느라 식사를 거르고 나와 출출하던 잠인데 간식으로 제공된 생약떡(당귀떡)도 꿀맛이었다.

(김창민 자영업·50세 양천구 신월4동 432-11 성도빌라 203호)

### 약초생태 관찰 기회, 유익

약초이름과 다양한 나물종류를 익힐 수 있어서 유익한 하루였다. 또 수입약재가 범람, 믿고 구입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협회가 나눠준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구별법’ 책자도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보고 싶다.

(김영옥 주부·43세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루2리 199)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5월28일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가리왕산에서 약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행사를 가졌다.

### 생약 재배지 탐방도 의미 있을듯

평소 한약재를 보약으로 복용한 것 말고는 직접 식물의 생태를 관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약 자원의 소중함에 눈뜰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 특히 말로만 듣던 둥글레, 승마, 쥐오줌풀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다. 자생지 답사 외에도 전국 생약재배지 탐방도 의미 있을 것 같다.

(박태진·78세 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36 강선마을 대우APT 109-704)



▲플라스틱 페트병을 미리 준비해 채취한 약초를 넣어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 ‘오염환경’ 국내 첫발견

### 천연약물연구소팀 설악산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 ‘설악둥글레’가 설악산 미시령 부근에서 자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천연약물연구소 김재길 소장과 충북대 생물과 오병우 교수가 설악산 생약 자원 탐사중 중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 ‘오염환경’을 발견하고 이를 설악둥글레(가칭)라 명명했다고 학계에 보고했다. 이 둥글레는 중국의 길림성과 소련 극동지방 등 해발 1,000m 이상에서 발견되며, 화사에 납작한 털이 있고, 끝에 유두상의 돌기가 있으며, 잎의 수가 2-4개로 개화기가 다른 것보다 늦고 꽃이 많이 달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생약과 인간’ 기획전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11월30일까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은 신축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생약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96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생약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약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물로 인류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현재 생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생약에 대하여 학생,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생약의 발달사, 생약의 분류, 생약의 다양한 이용(질병치료, 차·술로 이용되는 생약, 응용품)우리나라산과 중국산 생약의 비교등 16개 소주제에 생약과 응용품 2백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소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4층 기획전시실이고, 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이다.(관람문의 02-360-3155)

전시장소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4층 기획전시실이고, 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이다.(관람문의 02-360-3155)

전시장소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4층 기획전시실이고, 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이다.(관람문의 02-360-3155)

## 제4회 경동약령시 대축제

우수한약재 전시회등 행사다채

지난 6월 8-11일까지 서울 제기동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경동약령시 대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경동약령시협회 소속 한의원 2백80여개소, 약국 3백여개소,한약방30개소등 1천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맨먼저 보제원 제향을 전통의식으로 재현하며 시작됐다. 한국생약협회는 행사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약재를 전시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이외에도 한의사 약사들을 중심으로 무료진료 및 처방전, 수입한약재 비교전시회가 열렸다. 또 경동약령시 내에서 약재썰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여 ‘약재썰기대회’가 열렸고, ‘약용주·한약차 시음회’·‘가훈씨주’ 농약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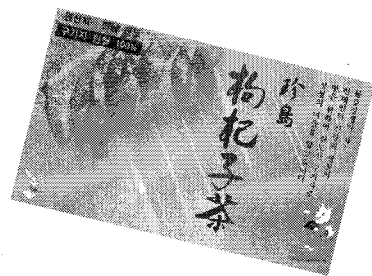


이 행사에는 경동약령시협회 소속 한의원 2백80여개소, 약국 3백여개소,한약방30개소등 1천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맨먼저 보제원 제향을 전통의식으로 재현하며 시작됐다. 한국생약협회는 행사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약재를 전시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이외에도 한의사 약사들을 중심으로 무료진료 및 처방전, 수입한약재 비교전시회가 열렸다. 또 경동약령시 내에서 약재썰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여 ‘약재썰기대회’가 열렸고, ‘약용주·한약차 시음회’·‘가훈씨주’ 농약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이 행사에는 경동약령시협회 소속 한의원 2백80여개소, 약국 3백여개소,한약방30개소등 1천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맨먼저 보제원 제향을 전통의식으로 재현하며 시작됐다. 한국생약협회는 행사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약재를 전시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이외에도 한의사 약사들을 중심으로 무료진료 및 처방전, 수입한약재 비교전시회가 열렸다. 또 경동약령시 내에서 약재썰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여 ‘약재썰기대회’가 열렸고, ‘약용주·한약차 시음회’·‘가훈씨주’ 농약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 진도구기자차

블로장생의 차 ~  
현대인의 건강과 생활의 맛을 위하여  
진도산 구기자로 정성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 진도구기자차기 좋은 이유

- 구기자를 차나 음용수로 개발하여 장기 상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기간 장기 복용할 때 구기자의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 끓일시 맛과 향이 잘 우러나도록 특수 제조하여 구기자 특유의 맛과 향을 느낄수 있습니다.
- 다른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구기자만으로 만들어 장기 복용해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오히려 해묵은 지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기자 원형 100% 티백소분 포장되어 있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한방식품입니다.

### 사용용도

차, 음용수, 병원식, 스포, 구기자 주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기차 음용수

6g티백 1포를 물 3l에 넣고 센불을 가하여 끓인 후 약한 불로 우려나오도록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음용하시면 입안의 개운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 구기차 지

6g티백 1포를 물 0.5l에 넣고 센불을 가하여 끓인 후 약한 불로 줄여 차 3잔이 되게 하여 구기자의 맛과 향을 느껴주세요.